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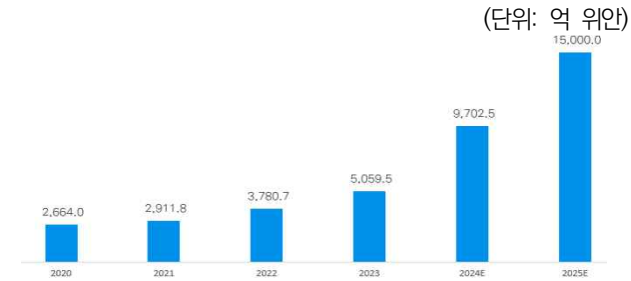
중국은 '저고도경제(低空经济)'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드론과 eVTOL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25년까지 시장 규모가 1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손해보험회사는 무인항공기의 손실, 제3자 배상책임, 탑승자 책임 등을 포함한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회사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저고도경제(低空经济)'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¹⁾
 - 저고도경제는 지상으로부터 수직 높이 1,000m 이내의 공역에서 드론, 헬리콥터, 전기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등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제조, 물류, 인프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통칭함
 - 제조산업(경찰·세관·군사 분야 등 항공기 제품 개발), 비행산업(응급의료·항공물류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산업(항공 통제 시스템·드론 운행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종합 서비스산업(광고·컨설팅·보험 등)으로 구성됨
 - 이는 2023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략신흥산업'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2024년 3월, 양회²⁾에서는 정부 업무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으로 공식 명시함
- 중국 저고도경제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5,059억 위안(약 100조 원)에서 2025년에는 1조 5,000억 위안(약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그림 1〉 참조)
 - 2023년 중국에 등록된 드론 수는 126만 7,000대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고, 비행 시간은 2,311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드론 설계 및 제조회사는 약 2만 개에 달함
 -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 규모 역시 2023년 기준 1,174억 3,000만 위안(약 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691억 위안(약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그림 2〉 참조)
 -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수직이착륙항공기(eVTOL)도 저고도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24년 4월 기준 전 세계 eVOL 제조 순위 1위 기업인 이항지능(億航智能)은 2024년 4월 중국민용항공국으로부터 EH216-S 생산허가증을 취득하며 시장 확대를 추진 중임

1) 中商产业研究院(2024. 12), "2025年中国低空经济行业市场前景预测研究报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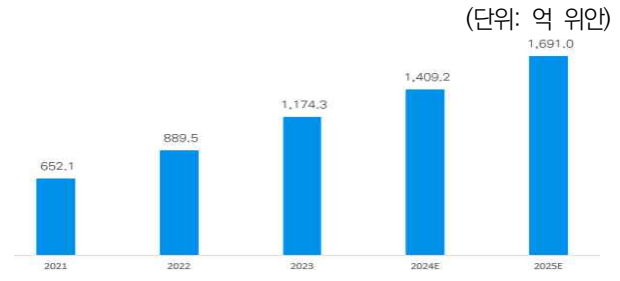
2) 양회(两会):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며,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 최대 행사로 국가 경제성장 목표와 중앙 정부의 운영 방침을 결정함

〈그림 1〉 중국 저고도경제 시장 규모



자료: 中國情報网(2024), “2025年中国低空经济行业市场前景预测报告”

〈그림 2〉 중국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 규모



자료: 中國情報网(2024), “2025年中国低空经济行业市场前景预测报告”

○ 중국 손해보험회사 중 30% 이상이 저고도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들은 주로 무인항공기의 손실, 제3자 배상책임, 탑승자 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³⁾

- 2024년 7월 기준, 중국보험업협회에 등록된 저고도경제 및 무인항공기 관련 보험상품은 총 45개이고, 청구액이 높은 주요 원인은 기체 파손(43%), 작동 오류(22%), 신호 간섭(19%) 순으로 나타남⁴⁾
- 인민재산보험회사는 2024년 7월, 광둥성에서 중국 최초로 ‘저고도비행체전용보험(低空飞行器专属保险)’을 출시했고, 이는 기체 손상, 제3자 배상책임, 탑승자 책임 등 주요 위험분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특수 위험도 보장함
- 평안재산보험회사는 심천에서 ‘평안저고도경제호항자(平安低空经济护航者)’ 종합보험 방식의 보험을 출시했으며, 이는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 결함, 사이버 보안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제공함
- 인수재산보험회사는 소주에서 15대의 농업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는 무인항공기 기체 손실, 조종사의 사고 부상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며, 총 보장금액은 1,350만 위안(약 26억 원)임

○ 현재 저고도경제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보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와 보험회사가 저고도경제 활성화에 따른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⁵⁾

- 스위스리에 따르면, 2035년 저고도경제 보험 시장 규모는 약 80억 위안에서 1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⁶⁾
- 광둥성 금융감독국은 2024년 7월, 광둥성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저고도항공기종합보험약관(低空飞行器综合保险条款)’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EH216-S 무인항공기에 539만 위안(약 10억 원)의 위험 보장을 제공함
- 보험회사들은 무인항공기의 제조, 운영,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공정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위험요소는 제조(작업자 안전, 영업비밀유출), 운영(소음, 기후재해), 서비스(장비 결함, 통신 장애) 등임
 - 항공기종합보험의 경우, 기체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요율이 각각 1~3%, 0.15~1% 수준이지만,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3) 新华网(2025), “险企相继入局·护航低空经济“稳起飞”

4) 51cto(2024), “低空经济乘政策东风：保险护航的机遇与挑战”

5) 新华网(2025), “险企相继入局·护航低空经济“稳起飞”

6) Swiss Re Institute(2024. 11), “中国低空经济风险探讨与保险发展机遇”